



NEW WORDS ☐ ☐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field	들판	2. beach	해변가	3. sand castle	모래성
<input type="checkbox"/>	4. echo	메아리	5. breathe	숨쉬다	6. fresh air	신선한 공기
<input type="checkbox"/>	7. grandmother	할머니	8. instead of	~ 대신에	9. scold	꾸짖다
<input type="checkbox"/>	10. annoy	짜증내다	11. miss	그리워하다	12. whisper	속삭이다

NEW EXPRESSIONS ☐ ☐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last night in my dream	지난밤 꿈속에서	2. on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에서
<input type="checkbox"/>	3. How do I feel this morning?	오늘 아침 나의 기분은 어떨까?	4. I fell asleep thinking about ~.	나는 ~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
<input type="checkbox"/>	5. she caught me in her arms.	그녀는 나를 그녀의 품에 안았다.	6. in a small voice	작은 목소리로

Listening 1 ☐



Last night in my dream, I met my best friend in the field. We jumped and ran together in the field. We danced together in the field. Last night in my dream, I met my sister on the beach. We talked and laughed together on the beach. We made sand castles on the beach. Last night in my dream, I met my father on the mountain. We climbed and caused echoes together on the top of the mountain. We breathed fresh air on the mountain. How do I feel this morning?



I love my grandmother the most in the world. She raised me instead of my mother. She never scolded or was annoyed with me. She only gave me love. I miss her very much now. I fell asleep thinking about my grandmother. That night in my dream, I met my grandmother. I ran to her and she caught me in her arms. She whispered to me in a small voice. "Are you hungry, baby? I'll make you some tteokbokki, so wait a minute."

0:00 / 0:37

해석

Listening 1

지난밤 나의 꿈속에서, 나는 들판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다. 우리는 들판에서 함께 점프하고 달렸다. 우리는 들판에서 함께 춤쳤다. 지난밤 나의 꿈에서, 나는 해변에서 나의 여동생을 만났다. 우리는 해변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다. 지난밤 나의 꿈에서, 나는 산에서 나의 아빠를 만났다. 우리는 등산하고 산꼭대기에서 함께 메아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오늘 아침 나는 어떤 기분일까?

Listening 2

나는 세상에서 할머니를 가장 사랑한다. 그녀는 엄마 대신에 나를 키워주셨다. 그녀는 결코 나를 꾸짖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다. 그녀는 나에게 사랑만 주셨다. 나는 지금 그녀가 매우 그리다. 나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할머니를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고, 그녀는 나를 그녀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배고프니, 아가? 떡볶이 만들어 줄테니까 잠시만 기다리렴."